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8장 구하여 찾음

『산상설교』 하권 제48장, 인쇄 242~255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7~11

> ❓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불안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위로의 약속으로 소개하며 설교를 연다. 곧이어 이 말씀을 “원하는 것은 뭐든 주신다”로 읽는 위험을 경고하고, 7~11절 전체와 7장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7장 1~6절의 높은 심판 기준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는다. 이 약속은 바로 그 필요에 대한 답이다. 이어서 그는 약속을 누리는 조건 세 가지를 차례로 풀어 간다. 첫째는 자기의 궁핍함을 알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다. 셋째는 그 아버지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이 성령이며, 성령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결론으로 간다.

📜 절별 정리

📜 1.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누구와 가는지는 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본문이 불안과 위험 속에 사는 사람에게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이라고 말한다. 주님은 7절의 약속을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라는 더 강한 형태로 되풀이하셨다. 우리가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그는 성경적 인생관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닥쳐오는 일 자체가 아니다.

성경에 철저했던 개혁파 신자들)는 그 이유를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질 때도 아버지가 함께 계시므로 혼자가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장미에서 가시를 다 잘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대신 무슨 일이 닥쳐도 놀라지 않을 만큼 당신을 알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1. 마태복음 7:7~11은 성경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다
2. 8절은 7절의 약속을 더 강하게 반복한다
3. 중요한 건 상황보다 그것을 맞는 준비다
4. 아브라함은 동행하는 분을 알았기에 평안했다
5. 하나님은 시련 제거가 아닌 동행을 약속하신다

> **마태복음 7:7~8**
> 반복을 통해 확신을 주는 절대적 약속
>
>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 **히브리서 11:8**
> 갈 바를 모르고 떠난 아브라함, 믿음의 삶의 본보기
>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 **요한복음 16:32**
> 모두 떠나도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자리
>
>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다.”

📜 2. 이 약속을 바로 읽는 법 — 주문도, 백지수표도 아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구절을 그냥 되뇌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성경을 세상식 심리 치료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구절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일시적 안정일 뿐이고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더 위험한 오해도 있다. “구하면 주신다”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신다는 보증으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읽은 사람은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다”며 절망한다. 그는 성경이 자동판매기처럼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존중하고, 성령을 통해 진리를 보여 준다. 그래서 약속을 볼 때는 그 약속의 한계도 함께 보아야 한다. 7~8절만 떼어 내지 않고 7~11절 전체를 함께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자기 경험도 고백한다.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 것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눈앞에서 닫으신 문들도 있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일들 때문에 깊이 감사한다고 그는 말한다.

1. 구절 반복은 일시적 심리 안정일 뿐이다
2. 성경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다
3. 약속은 그 한정과 함께 읽어야 한다
4. 7~8절이 아니라 7~11절 전체를 읽는다
5. 거절된 기도에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온다

> **마태복음 7:7~11**
> 약속(7~8절)과 그 한정(9~11절의 '좋은 것')을 한 단위로 읽어야 함
>
>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13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든'이 아니라 성령임을 미리 보여 줌 (7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룸)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은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 3. 왜 하필 여기서? — 심판 앞에 무너진 사람에게 주신 답

로이드 존스는 "주님은 왜 이 약속을 산상설교의 이 지점에서 하셨는가"라고 묻는다. 7장을 주님이 생각나는 대로 던진 말씀 모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는 이 견해를 거짓된 분석이라고 단정한다. 7장 전체에는 비판, 곧 심판이라는 주제가 흐른다. 우리는 좋든 싫든 늘 하나님의 눈 아래 산다. 이생은 죽음 너머의 큰 삶을 준비하는 예비학교와 같으므로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 주님은 이 주제를 먼저 남을 비판하는 문제에 적용하셨다(1~6절).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의 들보를 빼라는 말씀이다. 또 내가 헤아린 그 잣대로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엄청난 기준도 세우셨다. 이 기준 앞에서 교만은 꺾인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나, 도움과 은혜는 어디서 얻나"라고 묻게 된다. 그 물음의 답이 바로 7절이다. 그는 기독교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소한 도덕쯤으로 아는 사람은 진짜 기독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인가? 그는 이 약속을 누리려면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1. 7장은 두서없는 말 모음이 아니다
2. 7장을 꿰는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4. 높은 기준이 우리를 무능함 앞에 세운다

5. 약속을 누리려면 지킬 조건이 있다

> **마태복음 7:1~2**
> 내가 헤아린 잣대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준
>
>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 **마태복음 7:3~5**
> 남의 티보다 내 들보를 먼저 보라는 말씀, 자기 정체를 드러냄
>
>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 **로마서 8:37**
> 이 조건을 알 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
>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4. 첫째 원칙 — 내 궁핍을 알고, 끈질기게 구하라

로이드 존스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의 필요를 모르는 데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뱅이로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는 들어도, 너무 무력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말은 모욕으로 여긴다. 그러나 참으로 구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는 나의 궁핍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은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는 ‘넝마’된 사람만 구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단계로 나누는 주석가들을 반박한다. 어떤 이는 약한 소원에서 강한 소원으로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고, 어떤 이는 불신자는 두드리고 신자는 구한다고 본다. 그는 둘 다 틀렸다고 말한다. 세 동사는 한 가지, 곧 끈기와 끈덕짐을 강조한다. 누가복음 11장의 한밤중에 빵을 빌리러 간 친구, 누가복음 18장의 끈질긴 과부가 같은 가르침이다. 새해 처음 며칠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곧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다루시는 문제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배고픈 사람처럼 갈망하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바울처럼 이미 얻었다 하지 않고 푯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한다. 그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지점이라고 인정한다.

1. 인류의 주된 문제는 자기 필요를 모르는 것이다
2. 궁핍 자각과 은혜의 풍성함, 둘 다 알아야 한다
3. 세 동사는 단계가 아니라 끈기를 강조한다
4. 큰일 있을 때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5. 주림과 목마름은 계속되어야 채워진다

> **로마서 7:24**
> 자기 곤고함을 아는 사람만 참으로 구한다는 근거
>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누가복음 11:5~8**
> 한밤중 친구 비유, 같은 본문의 배경이 끈덕짐임을 보여 줌
>
> 5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 달라 6 내 벗이 여행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 **누가복음 18:1~5**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채워짐, 그 갈망은 계속되어야 함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빌립보서 3:12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가는 항구적 의욕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 5. 둘째 원칙 —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라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모든 원칙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주님은 9~10절에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논증을 쓰신다. 땅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돌이나 뱀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큰 약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입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을 아무에게나 적용하지 않는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는 악을 행한다는 뜻을 넘어 본성이 악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 곧 모든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그는 거부한다. 예수님은 어떤 이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셨다. 본성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 우리 죄를 처리하셨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새 생명과 새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은 또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쾌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결코 악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1.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모든 원칙의 중심이다
2. 본성상 악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3.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부성은 없다
4. 거듭나 새 성품을 받아야 자녀가 된다
5. 아버지는 자녀에게 결코 악을 주지 않는다

> **마태복음 7:9~11**
> 땅의 아버지에서 하늘 아버지로 나아가는 논증
>
>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 주시지 않겠느냐

> **요한복음 8:44**
>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자식일 수 있다는 근거
>
>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 **요한복음 1:11~12**
>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만 자녀의 권세를 주심
>
>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시편 51:5

죄 중에 잉태되어 거룩한 성품이 없는 인간

>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8:15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 6. 셋째 원칙 — 하늘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땅의 아버지는 떡 대신 돌을 주지는 않지만 실수는 한다. 그 순간에는 자식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잘못이었음을 깨닫기도 한다. 로이드 존스는 하늘 아버지는 다르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처음엔 좋아 보여도 나중에 해가 되는 것을 결코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그분은 선과 악의 차이를 완전히 아시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라고 부른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원칙은 2절에서 그가 고백한 "거절된 기도에 대한 감사"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준다.

1. 땅의 아버지는 선의로도 실수한다
2.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다
3. 처음엔 좋아도 해가 될 것은 주지 않으신다
4. 이 사실을 알면 미래 전망이 달라진다

마태복음 7:11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인간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대조

>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 7. 약속된 '좋은 것' — 성령,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로이드 존스는 11절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 답은 같은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11장에 있다. 거기서 '좋은 것'은 '성령'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그 안에서 주신다. 베드로가 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 약속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성령 충만, 사랑, 기쁨, 평화, 인내처럼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빛나던 덕목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는 이것이 미래와 마주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 곧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주실 것이다.

1.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13에서 성령이다
2. 성령 안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들어 있다
3. 약속은 좋아하는 아무것이나가 아니다
4. 그리스도를 닮는 덕목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5.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누가복음 11:13**
> 약속의 핵심 내용이 성령임을 밝힘
>
>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 **베드로후서 1:3**
>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음
>
>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태복음 6:33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가 더해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셈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비판(심판)

마태복음 7장을 꿰는 주제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판단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끈덕짐(강청)

응답이 더딜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태도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증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고 비교해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심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보편적 부성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로이드 존스는 이를 성경적이지 않다고 본다.

진노의 자식

중생(거듭남)
성령이 새 생명과 새 성품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일이다.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기를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처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마태복음 7:7~11은 불안한 인생에게 주신 큰 약속이지만, 반드시 7~11절 전체와 7장의 심판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
- 이 약속은 산상설교의 기준 앞에서 무너진 사람에게 “은혜를 어디서 얻느냐”에 대한 답으로 주어졌다.
- 약속을 누리는 조건은 셋이다. 내 궁핍을 알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그 아버지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는 것이다.
- 약속된 '좋은 것'은 성령이며, 성령 안에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미래를 맞이하는 길이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